



LA한국교육원, 美 최초로 초·중·고 학생들에게 한국어 이중언어 프로그램 수료증 수여

- 글렌데일 통합교육구(GUSD) Crescenta Valley 고교 등 6개 학교 140여명에게 수료증 수여
- 한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향상에 기여

- LA한국교육원(원장 강전훈)은 글렌데일 통합교육구(GUSD) 한국어 이중언어 프로그램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6개 학교 학생 140여명에게 한국어 이중언어 프로그램 수료증을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 LA한국교육원은 6월 4일과 5일에 각각, 글렌데일 통합교육구에서 한국어 이중언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Mark Keppel 초등학교, Monte Vista 초등학교, Toll 중학교, Rosemont 중학교, Hoover 고등학교, Crescenta Valley 고등학교의 우수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 글렌데일 통합교육구는 한국어 뿐 아니라, 아르메니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7개 이중언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타 언어들은 모두 정부기관으로부터 학생들의 이중언어 학습 노력을 인증하는 증명서를 발급 받았지만 한국어 프로그램은 이중언어 정부기관 인증서가 없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한국어 프로그램 학생들도 LA한국교육원의 인증서를 발급 받게 되어 학생들은 교육구와 정부기관으로부터 2개의 증명서를 수여받게 됩니다.
- 몬테비스타 초등학교에서 이중언어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중학생이 되는 아비게일 오 학생은, “중학교에서도 영어와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 그 재능으로 꿈을 펼치고 싶다. 이중언어 교육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 낸시 홍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이중언어 프로그램 디렉터는, “영어가 아닌 외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공부하는 언어권의 정부 기관으로부터 언어학습의 성취를 인정받는 것은 이중언어 학습에 대한 큰 동기부여가 된다” 고 말했습니다.
- 강전훈 LA한국교육원 원장은, “이번 수료증 수여를 통해 한국어 이중언어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들의 성취를 격려하고 지속적인 한국어 학습자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 고 말하고, “한국어는 한국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 정서를 담고 있는 훌륭한 언어이다. 앞으로도 LA한국교육원은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과 성취에 대해 확신을 갖고 한국어 능력을 키워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글로벌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붙임 : 사진 2부. 끝.

※ 관련문의 : LA한국교육원 (680 Wilshire Place #200, LA, CA 90005)
(213-386-3112) Homepage: www.kecla.org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담당자	이상범 부원장 (213-386-3112)
	담당자	

사진 1: 한국어 이중언어 프로그램 수료증 소감을 말하고있는 몬테비스타 초등학교 졸업생 아비게일 오 학생.



사진 2: 몬테비스타 초등학교 한국어 이중언어 프로그램 수료증 수여식 사진.
왼쪽부터 Hury Babayan 교장, 몬테비스타 졸업생, Jill Firstman 교감 선생님

